

총 장 후 보 지 원 서



김 종 길
金 鍾 吉 (59세)

Kim Jong Gil

Ph. D. of Public Administration

1. 학력

- 목원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79학번)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정책학전공, 행정학석사)
- 충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정책학전공, 행정학박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주택부동산 행정과 겸임교수
- (사) 독도중앙연맹 대전연맹장 (2011.1.26~현재)
- 미래창조관광(펜션)동산 대표
- 전원주택(꿈의동산) 대표

2. 경력사항

● 사회경력 및 교육

- 목원대학교, 대덕대, 충남대학교, 가천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우성정보대학 (시간강사)
- (도서출판) 미래강사 및 (사) 까치복지회 및 (부설) 미래정책연구소 대표 및 소장

● 사회경력 및 정치

- 목원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출판)
- 총동문경제인연합회 임원 (1996~1997)
- 대전 중구 제 15회 무소속 국회의원 출마 (1996. 4. 11)
- 새천년민주당 대전 제 4대 중구청장 후보자 및 출마 (2002. 6. 13.)

● 연구 실적

<저서>

- 미래의 꿈을 위하여
(1985년 9월 출판 기념회)
-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외 다수

<논문>

- 인권정책 형성과 집행에 관한 연구
- 부천시 성고문사건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1987)

- 고령화사회에서의 지방정부의 노인 교육 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단위의 노인교육 모형을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박사학위 논문, 2006년 2월)

◎ 정책 공약 ◎

● 대학 발전 구상과 실천 방안 ●

1. 교육·연구 환경 개선

- 목원대학교의 정체성 속에서 학생 중심 대학 경영 : 의미 경영(제1차 고객)
- 지속가능성 중심 대학 경영 : 변화 경영(내부고객, 교직원)
- 투명 및 참여 경영(외부 네트워크 강화) : 개방경영
ex) 연구단지와 적극교류를 통해 공동연구 및 연계 강화
- 다양한 교육재원 확보 방안 모색
-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사업 도전 및 객관적 성과평가를 통한 피드백

2. 우수학생 유치

- 총장 직속의 홍보, 기획전담기구 신설
- 의료법인 노인종합병원 설립과 노인교육센터의 설립을 통한 단기적 의대 신설
- 기존 특성화 사업 재정 지원 및 확충 기존 단과 대학의 국제화에 맞는 수익 사업 창출을 통한 학생들의 취업확대
ex) 로스쿨인가신청 (부동산관리법, 공익인권법, 교육, 국제지역법조인 양성, 교회와 법, 미술디자인관련법, 사회복지)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인가 신청

3. 생명과학 및 식품과학의 응용을 통해 수익 창출

- ex) 홍삼, 흑마늘, 블루베리, 꾸지뽕, 실크아미노산, 매실, 산삼 등(농업 및 과수)

4. 대학법인 수익용 부동산 개발

ex)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역삼동 수익용 빌딩(MTU) 신축 사례

5. 사범대학 부속인 특성있는 중·고등학교 설치

ex) 생명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6. 공정한 인사

혈연, 지연, 학연을 배제한 우수한 능력 있는 인재 등용

7. 예·결산 공개

- 합의에 의한 예산편성
- 특수사업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용

8. 총장 장학금 신설

9. 교목, 교수, 직원 등 후생 복리 향상

- 타대학교 비교해 처우개선
- 휴양시설 건립

10. 발전기금 확충 및 효율적 운영

수익사업 동문회를 통한 발전기금, 지역독지가 발굴 등

11. 학내의 의견 수렴 제도화

학생 취업 및 유학상당확대 등

12. 각 대학 발전 계획을 통한 선우선 지원 및 학술 활동의 국제화 적극 지원

13. 학내 연구비 및 우수교수 확보 및 겸임교수제의 확대 보완, 시간강사의 최대한 처우개선

14. 학교 법인 예산 지원 연구

★ 교육환경, 우수학생, 제도, 예산, 우수한 교수, 학교지원, 동문, Network화를 통한 발전을 위해 목사님, 동문들의 각오로 수익사업 창출과 관계 당국과의 협의(정치, 가치)를 통해 명문사학인 목원대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

김 종 길 총장예비후보 출마의 변(소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원 가족 제위분들과 이사님들!

본인은 가장 간절한 마음과 가장 낮은 자세로 목원대학교 총장 후보로 나서고자 합니다. 본인은 지난 2010년, 2014년 목원대학교 총장 선거에 2번 출마했으나 목원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사랑을 과분하게 받은 바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실로 한없는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생활하는 한편 많이 반성하고 부족한 부분을 살피고 채우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낙선 후 4년간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봉사생활의 실천 및 교회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여 들음과 기도와 회개의 실천 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다졌으며 보다 심도 깊은 연구에 정진하여 국정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 그리고 교육부의 대학 정책들에 대해 다양한 접촉의 기회를 경험했습니다. 중앙정부 부처내의 교육부의 지방대학교의 역할과 협력 관계를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목원에서 시작해 목원에 뼈를 묻는다는 심정으로 보고 또 보고, 묻고 또 물으며 목원의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뚜벅뚜벅 굳건히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목원은 1954년 도익서 박사님께서 소수의 목사님들을 교수님으로 모시고 감리교 대전신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지난 2018년 2월 22일 2017년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848명, 석사 176명, 박사 23명 등 2,047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로써 목원대는 모두 5만 2천 5백 명의 학사를 배출한 큰 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999년 2월에는 현재의 서구 도안캠퍼스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저는 목원에서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목원의 발전과 목원 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비전이 얼마나 있는지 심대히 고민하면서 출마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원 가족 제위분들과 이사님들!

봉사와 헌신의 삶을 몸으로 보여주었던 목원 신학 설립자 도익서 박사님을 생각하며 그 뜻을 받들고 기리고자 하는 강한 열정의 마음이 명문 목원대학교 총장예비후보 자리까지 저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목자 중의 군자이신 초대교장 전희철 목사님, 목원의 원대한 포부와 꿈을 이루신 이호운 학장님, 시대의 변화에 선두에 서서 개혁과 발전의 정신을 심어준 남기철 학장님, 이군호 총장님, 유근중 총장님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97년 서벌튼에서 소천하신 도익서 박사님은 저희 평생 정신적 기둥이시며 제가 목원에서 가난한 시간강사로만 22년간 복직케 한 원천이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원 가족 제위분들과 이사님들!

그러나 제가 총장이 되면 월급(기본급)없는 총장이 될 것이며 따라서 월급(기본급)을 모두 장학금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22년간 시간강사로 받은 연봉을 목원의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으로 전액 반납하겠습니다. 더불어 재임 기간 중에 추가로 저의 개인적인 재산을 일부 처분하여 장학금 조성에 보태어 목원대 재학생들만을 위한 장학 재단을 설립하여 임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 혜택이 이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목원을 섬기는 자세가 오늘이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었듯이 마지막 임기 끝나는 날까지 진실로 목원만을 섬기다가 저의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원 가족 제위분들과 이사님들!

저는 여러분을 섬기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도익서 박사님을 본받아 저는 여러분을 섬기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총장만의 관용차를 공용차로 바꾸고 걸어 다니는 총장, 공용차 타는 총장이란 별칭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소탈한 모습으로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솔선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호소하겠습니다. 실천이 없는 말은 허무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신뢰가 없습니다. 오로지 목원의 발전과 목원 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그리고 목원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루도록 하는 것만 바라고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원 가족 제위분들과 이사님들!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다른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원의 모든 가족들과 동문 그리고 학생들이 사회로부터 사랑과 존경하는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목원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선도하고 모든 대학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과 꿈에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는 격변기를 만나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김종길은 오랜기간 대학평가를 연구하였으며 교육부 담당관계자와 협상할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 능력을 발휘 할 기회를 한번 주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목원을 위해 간곡히 기원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불꽃의 봉사를 혼신을 다해 목원에 모두 바치겠다고 또 다시 다짐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제 소견을 마칩니다. 구체적인 대학 발전구상과 실천방안에 대한 정책과 저의 약력소개는 공식적인 서류로 제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견을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